

1. 금융취약성지수(FVI) 신규 편제 결과 및 시사점

1. 편제 배경
2. 금융취약성지수 편제
3. 최근 금융안정 상황 평가
4. 시사점 및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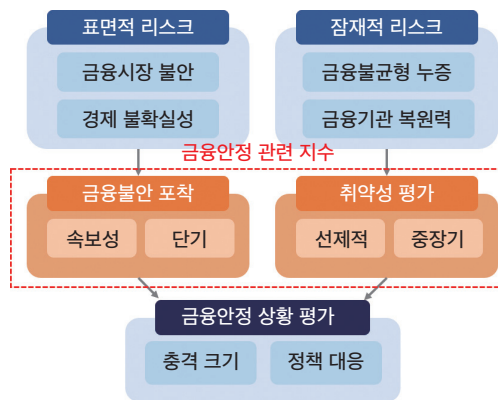
1. 편제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금융불안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안정 관련 지수를 개발하여 금융안정 상황 점검에 활용하고 있다.

금융안정 관련 지수는 도입 초기 주로 금융시장 가격변수에 나타난 금융불안 상황과 그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 가능성을 속보성 있게 포착하는 데 중점이 두어졌다.¹⁾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금융시스템 내 잠재하고 있는 취약성(vulnerability)²⁾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보다 중장기 금융안정 리스크를 측정하는 데 주안점을 둔 금융취약성지수³⁾가 개발·편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산가격의

과도한 상승, 신용축적 심화 등으로 인한 금융불균형과 대내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금융기관 복원력(resilience)⁴⁾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금융안정 관련 전반적인 취약성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⁵⁾(그림 1-1).

그림 1-1. 금융안정 관련 지수 체계



주: IMF, FRB, ECB 등의 금융안정 모니터링 체계를 참조하여 작성

한국은행은 2011년부터 금융불안 및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해 금융안정지수(FSI: Financial Stability Index, 이하 'FSI')를 편제하고 있다.⁶⁾ 동 지수는 금융시장 가격변수와 경제주체 심리 변화로 나타난 금융불안을 빠르게 포착하며, 특히 금융·경제 상황의 단기적 변동을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장기적 금융불안 요인의 식

1) 금융시장 가격변수에 나타난 금융불안 현상을 빠르게 포착하기 위한 금융스트레스지수(STLFSI: St. Louis Fed Financial Stress Index, CISS: ECB Composite Indicator of Systemic Stress in the Financial System 등), 금융 상황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금융상황지수(NFCI: Chicago Fed National Financial Conditions Index 등) 등이 있다. 한국은행이 2011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금융안정지수(FSI)도 이러한 유형의 지수라고 할 수 있다.

2) 금융취약성은 금융불균형이 누적되어 대내외 충격 발생 시 심각한 구조적 혼란(systemic disruption)이 초래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속성을 의미한다.

3) The U.S. Aggregate Index of Vulnerability(FRB), Cyclical Systemic Risk Indicator(ECB) 등이 있다.

4) 복원력은 금융시스템이 충격을 흡수하여 누적된 금융불균형에 따른 리스크가 급속하게 확대되지 못하도록 하는 대응능력이다.

5)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도 [금융안정 상황] 파트에서 신용 및 자산시장의 금융불균형 상황 및 금융기관 취약성을 평가하고 [복원력] 파트에서 금융기관 복원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6) 금융안정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2년 4월 금융안정보고서 <참고 IV-1> 「금융안정지수(FSI) 개요」(125쪽)를 참조하기 바란다.

별에는 다소 미흡하였으며,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최근의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금융불균형 및 금융시스템 복원력 수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금융안정 상황을 판단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 이하 'FVI')를 개발·편제⁷⁾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2. 금융취약성지수 편제

가. FVI의 의미

금융안정⁸⁾이란 금융시스템이 대내외 충격과 금융불균형의 급격한 조정과정을 감내할 수 있고 핵심 금융서비스(자금중개, 지급결제 등)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금융안정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융불균형 누증 등 금융시스템에 잠재해 있는 불안 요인은 물론 대내외 충격 발생 시 금융기관이 그 충격을 어느 정도로 감내할 수 있는지를 함께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금번에 한국은행이 새로이 개발한 FVI는 충격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측정을 통해 중장기적 시계의 잠재리스크 평가를 주목적으로 하며, 금융불균형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동시에 고

려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FVI의 상승(하락)은 금융불균형 누증(완화), 금융기관 복원력 약화(강화)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심화(완화)되어, 대내외 충격 발생 시 금융·경제에 초래될 부정적 영향의 크기가 확대(축소)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나. FVI 구조 및 세부지표

FVI의 구조와 세부지표들은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등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체계와 과거 금융위기 발생 전·후의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참고하여 구성·선정하였다.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 강화는 자산 및 금융시장에서 위험에 대한 과소평가로 이어져 부동산·주식·채권 등 자산가격의 급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자산가격 급등이 가계, 기업 등의 신용차입 확대와 맞물릴 경우, 금융불균형이 크게 심화되면서 실물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다. 한편, 대외 교역 및 자본거래 규모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 부문을 통한 과도한 신용차입도 금융불균형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자산가격 상승과 맞물린 신용축적으로 특징 지어지는 금융불균형이 누적된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급격한 디레버리징을 동반한 자산가격 하락과 실물경제의 위축이 초래될 위험을 안게 된다.⁹⁾ 하지만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자본 규모, 레버리지 등 금융기관

7) 한국은행은 2020년 9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 관련 보도자료("금융안정 상황(20년 9월.)")를 통해 동 지수(당시 명칭 'FSI-Q')의 시범편제 수치를 공개한 바 있다. 본고에서 발표하는 지수는 안정성 검증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정·편제한 지수로 기존 공개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8) ECB("Progress towards a Framework for Financial Stability Assessment", 2007), 한국은행("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2015)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의 복원력 수준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대내외 충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완화될 것이다(그림 1-2).

외 및 은행·증권·카드·보험·상호연계성¹⁰⁾의 11개 부문으로, 각 부문은 부문별 상황을 반영하는 39개의 세부지표¹¹⁾로 구성된다(그림 1-3).

그림 1-2. 주요 평가요소와 금융안정 상황 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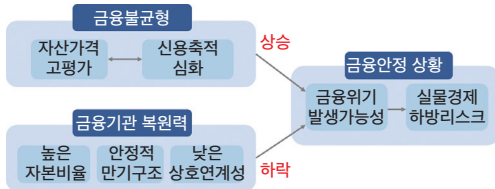


그림 1-3. 금융취약성지수(FVI) 구조



이처럼 금융불균형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FVI의 구조는 금융불균형을 측정하는 자산가격 및 신용축적과 금융기관 복원력의 세 가지 평가요소로 구성된다. 자산시장의 가치평가, 신용시장의 부채 규모,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및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세 가지 평가요소는 다시 각각 부동산·주식·채권, 가계·기업·대

한편 FVI는 월별로 편제되고 있는 FSI와는 달리 금융불균형 누증 등 구조적인 금융취약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데이터가 분기 단위로 편제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분기 단위로 편제될 예정이다.¹²⁾

- 9) 14개 선진국의 1870~2008년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전 신용축적 수준이 높을수록 위기 발생 이후 경제성장률 하락, 투자 축소 등 실물경제 위축이 크게 나타난다(Jorda et al., "When Credit Bites Back", 2013).
- 10)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은 경제에 발생한 충격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위험분담(risk sharing)을 통해 금융기관의 손실을 분산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충격에 따른 손실이 금융기관의 감내 능력 이상으로 크게 나타날 경우에는 금융기관 간 상호 거래관계를 통하여 위험을 확산·증폭시키는 취약성 요인으로 작용한다(Acemoglu et al., "Systemic Risk and Stability in Financial Networks", 2015).
- 11) FVI의 구조 및 세부지표는 아래와 같다.

평가요소	부문	세부지표
자산가격 (8개)	부동산	PIR(Price-to-Income Ratio) ¹⁾ ,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¹⁾ , 중대형 상가 임대가격 상승률 ¹⁾
	주식	PER(Price-to-Earning Ratio), PBR(Price-to-Book Ratio), V-KOSPI ²⁾
	채권	신용 스프레드 ²⁾ , CP 스프레드 ²⁾
신용축적 (14개)	가계	가계신용 증감률 ¹⁾ , 주택담보대출 증감률 ¹⁾ , 대출수요(가계, 주택) 가계 DSR, 가계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
	기업	기업신용 증감률 ¹⁾ , 대출수요(대기업, 중소기업), 기업 DSR, 부채비율
	대외	대외부채 증감률 ¹⁾ , 단기외화부채/총외화부채, 외환보유액/단기외화부채 ³⁾
금융기관 복원력 (17개)	은행	레버리지(일반은행), 단기부채비율, 예대율, 보통주자본비율 ³⁾ , LCR(Liquidity Coverage Ratio) ³⁾
	증권	레버리지, 단기부채비율, NCR ³⁾
	카드	레버리지, 단기부채비율, 조정자기자본비율 ³⁾
	보험	생명보험회사 RBC ³⁾ , 손해보험회사 RBC ³⁾
	상호연계성	금융부문 상호거래 규모 ¹⁾ , 금융부문 총부채 증감률 ¹⁾ DebtRank(금융업권 간), HHI(Herfindahl-Hirschman Index, 금융업권 간)

주: 1) 발산하는 유형의 변수임을 고려하여 추세 조정 값을 사용
 2) 특정시기에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는 변수인 점을 감안하여 로그 변환 값을 사용
 3) 세부지표 변동 방향이 FVI와 반대이므로 음(-)의 값으로 변환하여 반영

다. 지수 산출 방법

FVI는 ① 세부지표 표준화(normalization), ② 부문별 공통요인(factor) 추출, ③ 등분산 가중평균을 통한 종합지수 산출, ④ 지수 변환(0~100)의 4단계 과정을 거쳐 산출된다(표 I-1).

표 I-1. FVI 산출방식

산출단계		세부내용
1단계	세부지표 표준화 ¹⁾	$z_t^i = \frac{x_t^i - \bar{x}^i}{std(x^i)}$
2단계	부문별 공통요인(f_t^i) 추출 ²⁾	$z_t^i = \lambda_t^f f_t^i + u_t$ $\lambda_t^f = \lambda_{t-1}^f + \nu_t$ $f_t^i = c_t + B_t f_{t-1}^i + \epsilon_t$
3단계	등분산 가중평균을 통한 종합지수 산출	$I_t = \sum_{i=1}^{11} (w_i \times f_t^i)$ (w_i : 부문별 가중치)
4단계	Min-Max 방식을 통해 종합지수를 0부터 100까지의 값으로 변환	$FVI_t = \frac{I_t - \min(I_t)}{\max(I_t) - \min(I_t)} \times 100$

주: 1) 추세가 있는 세부지표(신용, 자산가격 등)는 지표 증감률의 3년 이동평균에서 GDP 성장률 3년 이동평균을 차감하여 장기추세를 제거한 후 표준화

2) 시변 모수 동태요인모형(Time-varying Parameter Dynamic Factor Model)을 활용하여 공통요인을 추출

우선 세부지표(39개)마다 변동폭이 상이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 각 지표를 변동성의 크기를 적용하여 표준화한다. 이어 세부지표에 대한 부문별 공통요인(11개)을 시변 모수 동태요인모형(Time-varying Parameter Dynamic Factor

Model)을 통해 추출한다.¹³⁾ 종합지수는 추출된 11개의 부문별 공통요인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변동성이 상이한 공통요인들이 전체 지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일정하게 통제하기 위해 등분산 가중평균 방법¹⁴⁾을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최종 지수는 역사적 최고치를 100으로, 최저치를 0으로 하여 지수의 범위를 0~100 사이로 한다. 이에 FVI가 100에 가까울수록 과거 금융취약성이 가장 심화되었던 시기의 지수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동 지수를 구성하는 3개 평가요소 및 11개 부문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각 평가요소 및 부문별 지수를 산출할 수 있다.

라. 산출결과

FVI 산출결과, 동 지수가 과거 위기 전후 우리나라의 금융취약성 수준을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히트맵(heatmap)¹⁵⁾을 활용하여 부문별 상황을 파악해 보면, 부문별로도 금융취약성 누증 요인을 잘 식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FVI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태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주요 위기 이전 지수가 빠르게 상승하여 비교적 뚜렷한 선행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2) 미 연준, 영란은행, ECB 등이 편제하고 있는 취약성종합지수(FRB, The U.S. Aggregate Index of Vulnerability), 순환적시스템 위험지수(ECB, Cyclical Systemic Risk Indicator) 등도 분기 단위로 편제된다. 한편 금융취약성은 중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축적되어 변동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특징이 있으므로, 분기 단위로 편제되더라도 중장기적 리스크를 평가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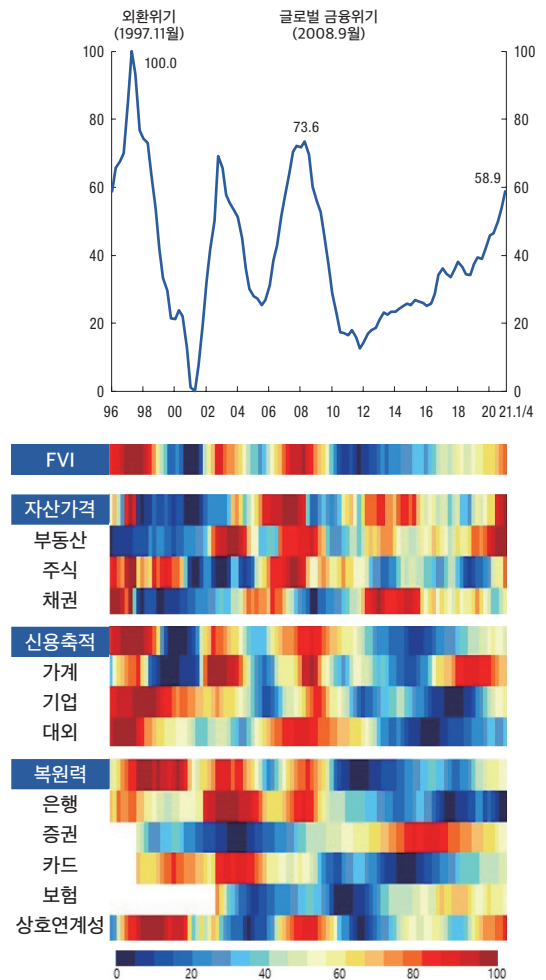
13) 예를 들어, 주식부문의 공통요인(factor)은 PER, PBR, V-KOSPI 3가지 개별 지표의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인 영향을 최소화한 공통적인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때 각 세부지표가 공통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하도록(time-varying parameter) 설계한다(Koop and Korobilis, "A New Index of Financial Conditions", 2014).

14) 개별 항목의 가중치를 전체 항목들 각각의 표준편차 역수들의 합에서 개별 항목의 표준편차 역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하여 가중평균하는 방법이다(개별 항목 i 의 가중치 $w_i = \sigma_i^{-1} / \sum_j \sigma_j^{-1}$).

15) FVI 및 부문별 지수를 크기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한 후 20개 구간으로 분류하고 서로 다른 색상을 적용하여 시각화하였다. 동 방법은 미 연준, 영란은행 등 해외 중앙은행들에서 금융안정 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Aikman et al., "Mapping heat in the U.S. financial system", 2017 등).

주요 금융위기 발생 이전 금융불균형 심화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적 위기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히트맵을 통해 부문별 상황을 보면, 외환위기 시는 주식, 기업, 대외 부문, 카드사태 시는 가계, 은행, 카드 부문, 글로벌 금융위기 시는 부동산, 주식, 대외 부문 등이 각 위기별로 금융불안을 유발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¹⁶⁾(그림 I-4). 한편 FVI의 경우에는 IMF, ECB 등의 지수 편제 사례를 참고하여¹⁷⁾ 취약성 수준에 대한 임계치를 설정하지 않았다.¹⁸⁾

그림 I-4. FVI 추이 및 부문별 히트맵



16) 한편 각 위기 발생 이후 금융취약성지수는 자산가격의 고평가 현상이 해소되고 부채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외환위기 시에는 기업, 대외 부문 등의 신용 위축이, 카드사태 시에는 가계신용 증가세 둔화 및 신용카드회사 복원력 개선이, 금융위기 시에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 고평가 해소와 신용증가를 둔화 등이 금융취약성지수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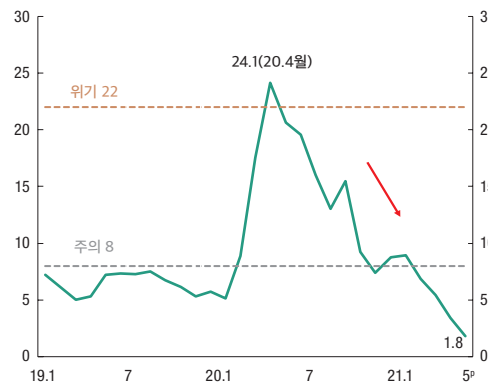
17) IMF(Financial Vulnerability Indices)와 ECB(Cyclical Systemic Risk Indicator)도 임계치 설정 없이 과거 수준과의 상대적인 비교 등을 통해 금융안정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18) FSI의 경우 충격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구분하기 위해 Borio and Drehmann(2009)의 방법론을 참고하여 '주의'와 '위기' 임계치를 설정하였다('주의'는 대내외 충격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심각하지 않은 경우를, '위기'는 대내외 충격이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

3. 최근 금융안정 상황 평가

먼저 기존 FSI를 통해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보면, 2020년 4월 위기단계에 일시 진입하였다가 지속 하락하여 금년 2월 이후 주의단계를 벗어나 금융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I-5).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직후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계·기업의 심리 위축 등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 등에 힘입어 빠르게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I-5. 최근 FSI 추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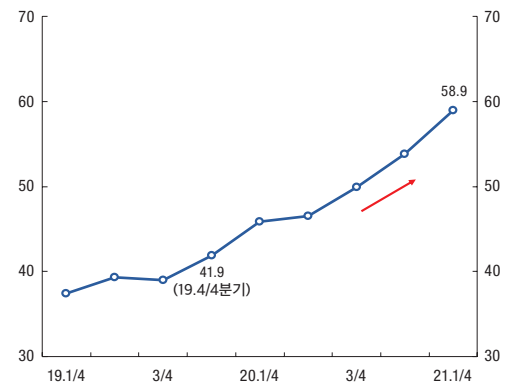


주: 1) 2021년 4월 및 5월은 잠정치

이와 달리 금번에 새로이 개발한 FVI로 평가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4분기 FVI는 58.9로 코로나19 확산 이전(19년 4/4분기 41.9)에 비해 상당폭 상승하였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FVI는 경제주체의 위협선

호 강화, 신용축적 등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으나 코로나19 위기 이후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승 속도가 가속화되었다. 다만 대외 건전성과 은행 복원력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데 힘입어 과거 위기 시 고점(97년 2/4분기 100.0, 08년 2/4분기 73.6)보다는 상당폭 낮은 수준이다(그림 I-6).

그림 I-6. 최근 FVI 추이



FVI 변동상황을 평가요소별로 살펴보면, 먼저 자산가격 총지수는 회사채시장에서의 신용 경제감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낮아진 가운데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수익추구 성향이 강화되면서 빠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¹⁹⁾ 이에 자산가격 총지수(21년 1/4분기 91.7)가 외환위기(97년 2/4분기 93.1) 및 금융위기 최고점(07년 3/4분기 100.0)에 근접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제의 호전과 더불어 자산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자산가격 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²⁰⁾(그림 I-7).

19) 특히 자산가격 총지수에 속해 있는 부동산 부문은 11개 부문 중 유일하게 100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FVI 편제 대상기간 중 현 시점(21년 1/4분기)이 가장 높은 상황임을 의미한다.

20) 미 연준은 지난 5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위험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일부 자산가격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향후 투자자들의 위험선호(risk appetite)가 약화될 경우 자산가격의 급락에 취약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림 I-7. 자산가격 평가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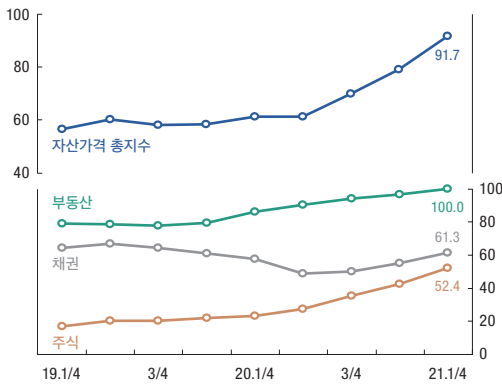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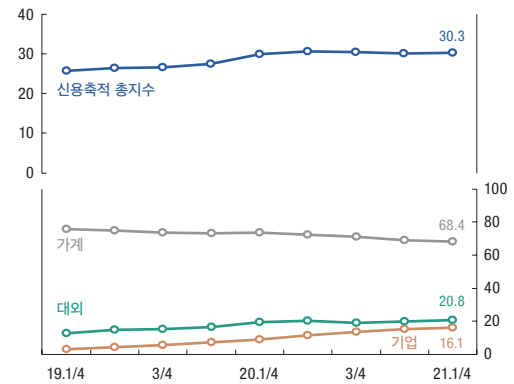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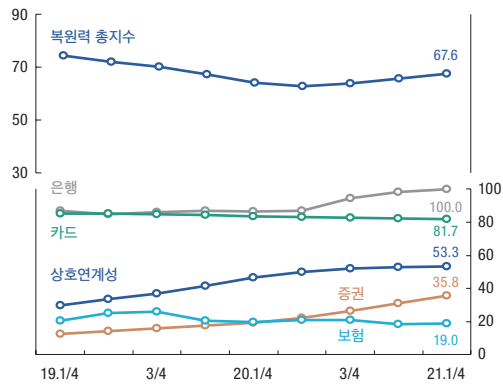
그림 I-8. 신용축적 평가요소



신용축적 총지수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과거 위기 당시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²¹⁾ 이는 최근 가계 및 기업 신용이 큰 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및 대외 부문의 건전성이 과거에 비해 양호한 데 주로 기인한다.²²⁾ 다만 가계 부문 지수가 68.4로 높은 수준에 있어, 자산가격 조정, 시장 금리 상승 등 금융경제 여건 변화에 대한 취약성은 높은 상황이다(그림 I-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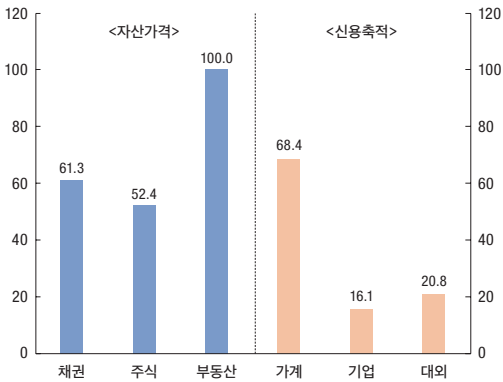
금융기관 복원력은 대체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은행 부문의 복원력이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규제 영향으로 강건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0년중에는 바젤Ⅲ 개편안이 조기 도입되면서 복원력 지표가 추가 개선되었다.²³⁾ 다만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금융지원 확대 등으로 은행·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그림 I-9).

21) 2021년 1/4분기 신용축적 총지수는 30.3으로 외환위기(97년 4/4분기 100.0) 및 금융위기(08년 4/4분기 73.5) 당시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22) 2020년말 기업의 부채비율은 77.2%(외감법인 2,520개 기준)로 금융위기 당시(08년말 111.7%)와 비교하여 크게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외 부문의 건전성 지표인 단기부채 비중(08년말 46.6% → 20년말 29.2%), 외환보유액/단기부채 비율(08년말 138.1% → 20년말 278.1%)은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23) 지난해 정부는 금융지원 확대에 따른 자본비율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대출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바젤Ⅲ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2022년 1월에서 2020년 6월로 앞당겨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개편안을 도입한 일반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림 1-9. 금융기관 복원력 평가요소¹⁾

주: 1) 복원력 총지수 및 금융업권별 지수는 상승시 복원력 개선(FVI 하락), 하락시 복원력 약화(FVI 상승)를 의미(단, 상호연계성 부문 지수는 상승시 FVI 상승요인)

한편 현 시점의 금융불균형 관련 부문별 지수를 살펴보면, 자산가격 평가요소 내에서는 부동산이, 신용축적 내에서는 가계 부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10).

그림 1-10. 금융불균형 관련 부문별 지수¹⁾

주: 1) 2021년 1/4분기 기준

4. 시사점 및 향후 계획

이상의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최근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단기적 금융불안이 해소되고는 있으나, 중장기적 시계의 금융안정 리스크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현 금융취약성 수준이 대외 건전성 및 금융기관 복원력 개선에 힘입어 과거 위기 수준에 비해 양호한 상황으로 평가되나, 향후 자산가격 급등 및 신용축적 지속에 대한 경계감은 더욱 높아갈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목적으로 금융안정지수(FSI)를 개발한 데 이어, 금번에 금융불균형 및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를 신규 편제하였다. 이는 금융불안 상황에 대한 신속한 포착과 더불어 중장기적 시계의 금융안정 리스크도 적시에 평가하여 금융안정을 다각적으로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²⁴⁾

금융취약성지수를 통해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뿐 아니라 부문별 변동 요인까지 신속·체계적으로 파악하게 됨으로써 동 지수가 거시건전성 상황 평가 및 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 참고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취약성 상황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금융안정 관련 다양한 분석에도 동 지수를 활용할 계획이다.²⁵⁾

24) 향후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지수(FSI)와 금융취약성지수(FVI)를 병행 활용함으로써 현재의 금융불안 여부와 누적된 금융취약성 수준에 대한 금융안정 상황을 균형있게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25) 최근 IMF 및 한국은행 등은 금융취약성이 GDP 하방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19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 <참고 1> 「Growth-at-Risk를 활용한 우리나라의 금융취약성 평가」(12쪽) 및 2020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도자료 <참고 2> 「코로나19 이후의 금융취약성 평가 및 실물경제 하방리스크 점검」(20쪽)을 참고하기 바란다.